

‘우리나라 김(GIM)! 세계 김산업 이끈다’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

- 「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」 수립,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높여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「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.

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%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.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·일본의 견제와 태국·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「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」을 추진한다.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,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, ▲고품질 원료 공급, ▲고부가가치 창출, ▲미래지속 성장형 산업, ▲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.

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,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,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,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 또한, 미래 신상품 연구개발(R&B) 강화,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한국 김(K-GIM)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,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플랫폼 구축, 국제 인증제도 확대, 한국 김 ‘K-GIM’ 명칭 세계화 등을 추진하여 한국 김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「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」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, 더욱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.”라며, “이를 통해 작년에 6억 5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을 2027년에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희정 (044-200-5480)
	수출가공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김영민 (044-200-5488)